

향군성명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남의 일 아니다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이 지난 8월 15일, 미군 철수를 시작한지 3개월 만에 이슬람 무장세력인 탈레반에 의해 붕괴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이던 아슈라프 가니는 수도 카불이 함락위기에 처하자 사의를 표명한 뒤 국민들을 버리고 아프간을 탈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정권 붕괴소식이 전해지자 카르자이 국제공항과 카불 시내를 탈출을 시도하려는 차량과 인파가 몰려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지금도 수십만이 목숨 걸고 아프간을 탈출하기 위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이 모습은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이 함락되던 그날을 연상케 하였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의 배후인 오사마 빈 라덴을 넘기라는 요구에 불응하자 아프간을 침공하고 탈레반 세력 축출에 나서 20년 간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미군 2,488명이 전사했다. 또 나토군과 동맹군 1,144명도 희생되었으며 군비도 20년 간 총 1조 달러(1,172조 원)를 들여 아프간 정부군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정부군은 전투의지를 상실한 채 군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하면서 미국이 지원하는 돈을 빼돌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30만 정부군이 5만여 명에 불과한 탈레반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인 대한민국제향군인회(이하, 향군)는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 정부와 군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아프간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국민의 안보의식을 제고하고 한미동맹을 강화시켜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향군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국가안보는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확고한 의지에 달려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과 안보를 소홀히 한 민족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춘 국가만이 부국강병을 누리며 발전을 거듭해 왔다. 또 국민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려 왔다. 1974년 월남패망과 이번 아프간 사태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 및 정치지도자들은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안보문제를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들 또한 아프간 사태를 교훈삼아 국가안보는 국민 모두의 의무이며 스스로 지켜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투철한 안보의식을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둘째, 군은 국가를 방위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과 휴전상태로 대치하고 있다. 이번 아프간 사태에서 최신 장비로 무장한 아프간 정부군이 탈레반의 공세에 제대로 된 전투 한 번 못하고 항복한 것은 아프간 군대가 부패와 분열이 극심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강인한 전투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국군은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서있다. 우리의 국력과 국군의 전투력, 전략적 위치를 아프간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만, 아프간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군 본연의 임무인 국가 방위를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하여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강군으로 거듭나

야 한다.

셋째,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을 국가안보의 기본축으로 하여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일구어 왔다. 이번 아프간 사태는 국익우선 동맹에 기반을 둔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아프간에서 철수한 것은 싸울 의지가 없는 아프간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실망에서 나온 것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국익이 없는 곳에서 싸우는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동맹은 기본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관계이지 무조건 작동하는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며, 아프간 사태가 우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는 냉혹한 국제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아프간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동맹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주의에 입각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한미동맹이 상호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전략동맹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과 정치지도자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상호존중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미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 나아가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번 아프간 사태는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는 동맹이 아무리 도와줘도 무너지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따라서 국가안보는 국가의 명운과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남녀노소가 있을 수 없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안보문제 만큼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한 방향으로 국론을 결집하여 안보역량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

2021. 8. 18 대한민국제향군인회

선거관리규정 정비, 공명정대한 선거 추진 경영여건과 부채고려, 적정예산 편성 권고

2021정기총회 의결 안, 국가보훈처 승인

2021년도(제74차) 정기전국총회에서 의결한 16건 중 국가보훈처의 승인이 필요한 정관 변경 등 7개 안건이 모두 승인됐다. 국가보훈처는 향군이 4월29일 정기전국총회를 마치고 5월17일 국가보훈처에 승인 요청한 7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8월2일 문서로 통보해 왔다.

국가보훈처는 승인문서를 통보하면서 금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각급회의 긴급한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승인하였으며

내년도 예산 편성 시 향군의 경영여건과 부채 감축 목표 등을 고려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또 2020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개선하여 정기회계 감사 시 ‘적정’을 달성하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회원모두의 관심사였던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서는 “향군의 선거관리규정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비를 통해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본회는 우선 각급회 운영비의 경우 현재의 경영 여건과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하반기부터 100%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부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편제 조정 및 인원 축소 운영, 긴축 예산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향군의 위상과 자존심을 회복하고 각급회 및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추진했던 이사 발의 정관 변경 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정비를 통해 내년 4월 회장 선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유튜브방송 「향군TV」 채널운영
※ 접속방법: <https://youtube.com/향군tv>

향군TV
바로가기▶



대한민국제향군인회

6·25 전사자의 가족을 찾습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6·25 전사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모시겠습니다.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DNA 시료채취 참여

채취대상 유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방법 가까운 보건소 및 보건지소, 군병원, 예비군 동대, 보훈병원, 전국 적십자병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서울원충원) 방문 또는 전화신청

신원 확인 시 최대 1,000만원 포상금 지급

문의전화 02-417-5255, 5414

향군, 한미연합훈련 예정대로 실시하라

북한 협박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 자존심 지켜야
한미연합훈련, 주권문제이자 한미안보전략 근간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이 8월1일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을 협박하자, 향군은 8월3일 성명을 발표하고 “계획된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성명에서 향군은 “북한 김여정의 노골적인 협박에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안보문제를 두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정치권은 둘로 쪼개져 심각한 의견 충돌을 보이고 있다”고 개탄한 뒤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전술전기를 연마하는 것”이라며 “계획된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 정부 출범이후 지난 4년 동안 제대로 된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대북관계를 이유로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며 “국방부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와 중단으로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가 약화되거나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좌고우면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여정은 국군통수권자가 아니라고 일축한 뒤 연합훈련 중단 협박,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 폭파 등을 언급하며 “한미연합훈련은 대한민국의 주권문제이고 한미 간 안보전략의 근간”이르

로 “더 이상 북한의 협박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지켜 나가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피로 맺은 혈맹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안보의 기본 축이라고 설명한 뒤 “현재 북한의 핵과 각종 미사일 등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과 확고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구축만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확실한 군사대비태세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보에는 진보와 보수, 여와 야가 있을 수 없고 지금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은 남남갈등과 한미동맹 균열을 획책하려는 의도적인 위장평화 전술이므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버리고 군사훈련, 전력증강, 국방예산 등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국가안보 역량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정부에 국론을 하나로 결집하고 국가안보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을 모아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향군은 국내 최고 안보 단체로서 국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안보 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며 “누구를 막론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거나 한미동맹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의 안보칼럼

미국의 아프간 철군과 한반도에 주는 교훈

미국이 아프간으로부터 철군을 선언한지 불과 3개월만에 아프간 전역이 탈레반의 손에 넘어갔다. 탈레반이 과속지세로 수도 카불로 진입하자 대통령은 돈다발을 들고 해외로 도주했다. 탈레반은 카불 점령 직후 대외적으로 밝힌 온건 노선과는 달리 부르카를 입지 않은 여인을 총살하고 반동분자를 찾아내 연일 보복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마치 6·25때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과 똑같았다.

사이공 함락 그날과 너무 닮은 탈레반의 카불 점령, 아프간의 붕괴

아프간 정권이 붕괴되자 카르자이 국제공항과 카불 시내에는 탈출을 시도하려는 차량과 수십만 인파가 몰려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는 이륙하는 비행기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져 즉사했다. 지금 아프간은 연일 수십만이 목숨 걸고 ‘대탈출(Exodus)’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그야말로 혼돈(Chaos)과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이다. 아프간 난민만도 200만에 달한다. 마치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이 함락되던 그날의 모습과 똑같았다.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아프간 국가의 재건과 군의 약 2조 달러(2300조원)를 쏟아 부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4배가 된다. 아프간군은 UH-60 블랙호크 등 현대식 무기로 무장됐고 병력도 30만명이나 된다. 그러나 공군력도 전혀 없고 구식 소련제 소총과 견착식 로켓포 정도로 무장된 군복도 없는 탈레반에 총한번 제대로 못쏘고 백기 투항했다. 설상가상으로 아프간군의 투항으로 미국이 1조달러(1150조원)를 쏟아부은 무기와 군사장비들은 고스란히 탈레반의 수중에 넘어갔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이 없고 ‘싸울 의지’가 없는 나라를 위해서는 더 이상 미군이 희생되는 전쟁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국내외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미군 철수 결정은 미국을 위한 최선이었다”고 당당히 맞서고 있다. 사실 아프간 철군은 6년전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 때 결정된 것이며, 탈레반과의 철군 평화협정은 작년 2월 트럼프 공화당 정부 때 맺은 것이다. 미국의 아프간 철군을 통해 얻은 교훈은 미국은 공화·민주당 할것없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사이공에 이어 카불이 함락되면서 내일과 모래는 타이베이와 서울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한국과 아프간의 국력과 전략적 위치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비약이다.

하지만 “북한은 모든 무기 체계가 남아 남침할 능력은 커녕 자신들의 생존과 체제 유지가 더 절박한 실정”이라고 한 여당대표의 인식도 한심하다.

일찍이 김정일은 휴전선만 넘으면 남조선에 있는 기름과 쌀로 쉽게 남조선을 ‘판가리(판갈이)’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게다가 김정은은 10여분이면 남한 전역을 잿더미로 만들 30~60기의 핵무기체계에 더해서 전술핵무기와 전략원잠(SSBN) 개발까지 교시했다.

한국군 단독으로 북핵 억제 및 방위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한국은 미국의 아프간 철군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국가대전략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국익과 싸울 의지’가 없는 나라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바이든의 선언을 중요한 교훈으로 새겨야 한다.

미국은 트럼프 시대 중국에 대한 기대가 ‘대환상(Great Delusion)’이었음을 깨닫고 중국의 위



김 기 호

KC대 국제관계학 교수
돌 하나 연구소장

협을 본격적으로 재인식했다. 트럼프는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는 아베의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에 따라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했다. 작년부터 미국은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중심으로 중국을 능가하는 압도적인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게다가 역대 동맹국들과 연대하여 쿼드(Quad) 등 대중국연합체를 강화해오고 있다.

트럼프의 대중국전략을 계승한 바이든은 G7에 NATO까지 포함한 ‘민주주의 동맹(Democracy Alliance; D10)’으로 대중전선을 확장시켜 인도-태평양에 전력을 집중투사하고 있다. (지난 4월 프랑스가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쿼드 4개국’과 함께 벵골만 해상에서 대중국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영국도 프랑스에 뒤질세라 항공모함 퀴엘리자베스호를 지난 7월말 남중국해에 진입시켰고, 독일 호위함 바이에른호도 지난 8월 2일 인도·태평양 지역을 향해 출항했다.)

인도-태평양이 국제질서의 중심으로 급부상하면서 대중국연합을 위한 첨병으로서 한국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함으로서 한국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아프간에서 발을 뻗 바이든의 메시지는 “한국, 미-중사이 줄타기를 끝내라”는 것이다. 미국은 친북·친중성향의 현 정부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는지 ‘싸울 의지’가 있는지 저울질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경제적으로 필요해서 한국을 이용했으나 이제 아쉬울 게 없어지니 사드(THAAD) 보복은 물론 내정간섭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이 터질 형국인데 정부는 남북 이벤트 정치에 골몰하고 있다.

아프간 미군 철수, 불신에서 비롯 영원한 우방 없어, 오직 국익만 존재

급변하는 안보상황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한국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이 되도록 ‘한국의 가치’를 높이고 ‘싸울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미국은 사활적 이익인 일본과 독일에서 미군철수를 언급한 적이 없다. 이를 위해서 무리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중지하고 ‘쿼드를 한국이 포함한 펜타’로 격상시키며, ‘민주주의 동맹 D10’에 참여하여 과학기술경제동맹으로 ‘가치’를 높이면 주한미군 철수 운운도 없고 중국의 경제보복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특히 3년이상 중단된 한미연합훈련을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 당장 복원시켜 ‘싸울 의지’를 보여야 한다. 내친김에 한국은 펜타주도국이 되어 NATO처럼 전술핵무기를 공유하고,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선하여 전략원잠(SSBN)을 구비하는 등 경제력에 걸맞는 자주국방력을 갖춰야 한다.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는 불신과 실망에서 나왔음을 교훈으로 되새겨야 한다. 미국의 불신과 실망과 인내의 한계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나라의 안보는 ‘싸울 의지’에 달려있으며,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고, 오직 ‘국가이익’만 있기 때문이다.

향군TV 유튜브 방송 '향군 안보정론' 개설

□ 목 적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효과적인 대국민 안보활동 추진

□ 내 용

- 유튜브 방송명 : 향군TV 내 향군 안보 정론 / 이슈체크
- 방송 주제 : 국가안보 및 국방 관련 이슈
- 영상 업로드 주기 : 주2회(매월 8회 이상)
- 방송 시작 일시 : '21. 5. 1일부
- 대상 : 향군회원 및 국민

□ 출 연 자

- 향군에서 선발된 안보교수진

□ 방송 찾아보는 방법

- 유튜브 검색창에 '향군TV', '향군 안보정론', '이슈체크' 검색
- 주소 : YouTube.com/향군TV

향군회원들과 국민들의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향군역사 바로알기 ㉓

향군 해외지회, 참전국과 유대강화·교민 결속 한반도 위기 발생 시 직·간접적인 지원 확보

향군이 해외지회를 창설하게 된 배경과 목적은 6·25전쟁 참전국을 중심으로 회원 상호간 친목활동을 통한 교민들의 결속과 해당국 참전용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위기 발생 시 직·간접적인 지원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아울러 고국인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한 교민들의 올바른 안보의식을 함양하는데도 목적이 있었다.

향군의 해외지회 중 가장 먼저 창설된 조직은 일본 동경지회이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9월 재일동포를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어 조청련에 대항하면서 6·25참전 전물자납골당 및 충훈탑 건립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1962년 8월 7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일본지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52년 일본 동경지회 최초 창설

현재 13개국, 22개 지회로 확대

그 이후 1969년 6월 미 동부지회(워싱턴DC), 미 북동부지회(뉴욕)가 창설되고 1978년 7월 미 서부지회(로스앤젤레스), 1982년 10월 대만지회(타이베이), 1983년 5월 호주지회(시드니), 1984년 8월 미 중서부지회(시카고), 1987년 1월 캐나다 동부지회(토론토), 1989년 7월 아르헨티나지회(부에노스아이레스), 1996년 3월 미 남부지회(애틀랜타), 1997년 10월 캐나다 서부지회(밴쿠버) 등 2010년 초까지 총 11개 지회가 창설되어 다양한 안보활동과 친목도모를 위한 유대강화 활동을 전개해왔다.

2009년 9월 제33대 박세환 회장이 취임하면서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으로 국가 간 소통이 강화되고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해외지회 확장에 나섰다. 2010년 10월 독일지회 창설을 필두로 브라질지회, 미 북서부지회(샌프란시스코)를 설립하고 2011년에는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필리핀, 태국 등 5개 지회를 창설하였으며 2013년 미 중남부지회(휴스턴), 2014년 미국 필라델피아, 오렌지카운티에 각각 지회를 설립하여 향군의 해외지회는 13개국, 22개 지회로 대폭 늘어났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17년 8월 제36대 김진호 회장이 취임하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향군 안보활동의 3대 중점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본회에서는 미국의 9개 지회를 한미동맹 강화와 공공외교활동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2018년 8월에는 미국 AL(American Legion) 100차 총회에 초청받아 영어로 축하 연설을 하여 7차례의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미국 방문 중 대표적 친한 인사인 설리번 상원의원을 만나고, 한국전참전기념공원 참배, 티렐리 전 연합사령관과 간담회, 미 참전용사촌을 방문하고 미주 7개 지역 향군지회 및 동포대상 안보강연 등을 실시하였는가 하면 귀국 후 한국전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 성금 모금운동을 향군회원은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하였다.

향군은 10개월 동안 회원들은 물론 각계각층으로부터 총 6억 3천여만 원을 모아 2019년 7월 워싱턴을 방문하여 참전용사 350여 명을 초청, 보은의 밤 행사를 열고 그 자리에서 추모의 벽 재단 이사장인 티렐리 장군에게 전달하여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

공공외교 구심점, 민간외교 최첨병

안보교육 통한 교민 친목도모, 안보의식도 함양

그 외에도 해외지회가 각 지역 동포사회에서 안보의식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매년 향군회장단이 해외지회를 방문하여 회원 및 동포 대상 안보교육과 해당국 향군단체와 상호 교류·협력을 하고 있다. 또한 해외지회장 및 임원을 고국으로 초청하여 안보교육과 안보현장 견학 등을 실시하여 복귀 후 회원들과 동포를 대상으로 고국의 안보현실을 정확히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전에 외교는 정부 간의 협상이라고만 생각되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2016년 2월에는 공공외교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공공외교는 자국의 역사, 문화, 전통,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외국 대중의 마음을 사고, 감동을 주어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향군은 공공외교를 통해 한미동맹은 물론 우방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가장 적합한 국내 최대 안보단체로서, 국제협력실을 중심으로 해외지회를 공공외교의 전초기지로 삼아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해당국가의 주류사회와 친한 인사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량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이익과 향군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국제협력실〉

안보전망대

바이든, “한국·대만·나토 주둔 미군 철수할 생각 없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동맹을 버릴 수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대만, 그리고 유럽 주둔 미군을 철수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월18일(현지시간) 미국의 ABC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아프간과 대만, 한국,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이들 국가가 다른 나라의 침략이

나 적대적 행위에 노출될 경우 미국은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이들 나라와 맺은 방위조약은 아프간처럼 내전 상태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통합정부를 가진 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언론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말해온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우리 군



대를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 “우리 핵전력으로 북핵 억제해야”

미국의 핵전력을 총괄하는 찰스 리처드 미군 전략사령관은 8월12일(현지시간) 미국 앨라배마에서 열린 우주와 미사일 방어 회의에 참석해 “미국은 현재 중국보다 많은 (핵무기)비축량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조약으로 인한 제한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의 3분의 2는 사용할 수 없다.”며 “미국이 북한을 비롯, 중국과 러시아 등의 핵을 억제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미사일 방어는 미국방의 필수 요소’이며, “미국이 신형 ICBM 체계로 교체하지 않는다면 전략적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가 시험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을 언급했다. ‘미니트맨-3’ 제작사인 미국 보잉에 따르면 미니트맨-3은 한 시간에 2만 4천



킬로미터를 비행해 약 30분이면 북한 상공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훈련, 진정한 방어 수단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8월18일 미국의소리 방송(VOA)과의 전화 통화에서 아프간 사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관련해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휴전 상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

다”며 “한국군이 항상 훈련되고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앞으로 이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아프간 사태를 이용하려 할 것을 우려하면서 “훈련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방어 수단이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을 계속 진행해 군사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한미군사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북한, 중국에 석탄 팔고 지원품 들여와… 유엔 대북제재 위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8월18일 입수한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은 유엔 전문가단의 보고서를 인용, “북한 국적의 선박 태성8호가 올해 3월 중순 중국의 닙보-저우산 해역으로 석탄을 수출한 뒤 4월에는 중국 톈커우에서 인도주의 지원품을 싣고 북한으로 되돌아 왔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 선박 고산호는 지난해 5월 북한 청진항을 떠나 6월 중순까지 역시 중국의 닙보-저우산 해역으로 석탄을 실어 나른 뒤 같은 해 7월 중국 다롄에서 인도적 지원물품을 갖고 북한으로 돌아왔으며 고산호는 올해 4월 5일에도 중국 해역에서 석탄을 운반하고 있었다”

고 밝혔다.

RFA는 북한이 석탄을 중국 측에 수출했다면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 되고 북한이 중국에서 갖고 온 ‘인도적 지원물품’이 정식으로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뉴딜 성과, 국방 분야로 확산... 스마트 국방 구현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협약 ... 국방 사이버 안보협력

국방부는 8월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 뉴딜과 스마트 국방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국방 분야에 확산하여 디지털 강군, 스마트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디지털 뉴딜과 연계하여 국방 전 분야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통한 디지털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국방 ICT R&D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R&D 추진전략 및 기술로드맵 수립, 신규 사업 발굴·기획, 사업집행 관리, 실증사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민간의 DNA(Data, Network, AI) 신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선도 적용한다. 이를 위한 「DNA 기반 스마트국방 전략(가칭)」을 하반기 중 수립하고, 국방 ICT R&D 전용 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군 장병에 대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도 지원한다. 병사 및 전역 예정자에 대한 수준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 및 자격

증 취득, 기업 재직자 멘토링 등을 제공하여 군 복무 중 AI·SW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장교·부사관 등 장기 복무자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화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양 부처는 △드론, 로봇 등 무인 이동체 분야 기술교류 및 R&D·실증·확산사업 협력 △국방 사이버 안보협력 증진 △과학화 경계시스템 현대화 등 디지털 뉴딜과 연계된 스마트 국방 혁신 전 영역에서 그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에 신뢰받는 우리의 국군

생활치료센터 입소환자 지원

육군50사단 낙동강여단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종식을 위해 경북 구미에 추가 개소한 경북지역 생활치료센터에 8명의 장병을 2주 단위로 투입해 입소한 환자분들께서 하루빨리 완쾌해 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들에게 생필품과 도시락을 전달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운반과 지원 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군인으로 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입소하신 모든 분께서 건강하게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성심을 다해 지원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태풍 피해 해양 정화활동

해군1함대 108전대 장병들이 8월 11일 제9호 태풍 루핏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양양군 기사문항 일대에서 해양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곳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10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다. 108전대 장병들은 이날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해안가에 떠밀려온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구슬땀을 흘렸으며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하여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동참하게 되어 뿌듯하다”고 밝혔다.

폭염에 도로 살수 대민지원

공군1전투비행단(1전비)은 7월 29일부터 8월5일까지 무더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부대 인근 광주공항과 송정역 일대 도로 약 10km 구간에 걸쳐 도로

에 물을 뿌리는 살수 대민지원을 실시했다. 대민지원에는 다목적 도로관리 차량을 동원,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살수 대민지원은 폭염 상황이 이어지면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의 요청과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부대의 뜻이 일치하여 이루어졌다.

장병들은 “불볕더위와 높은 습도로 광주공항·송정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금이나마 시민들에게 도움을 준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휴가철 앞두고 지뢰탐색 작전



서해 최북단 백령 도서군을 수호하는 해병대6여단은 지역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주민과 피서객의 안전을 위한 지뢰탐색작전을 실시했다. 6여단 공병중대는 백령도 사곶해안과 대청도 지두리해안에서 지뢰탐색 전문요원을 투입해 탐색 작전을 펼치며 안전한 여름나기 보장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돼 여름 휴가철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백령도 하니 해변 일대는 서해 북방한계선과 인접한 백령 도서군의 특성상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된 지뢰가 해안으로 떠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안전 대비책 마련이 필수적인 곳이다.

국방단신

방위사업청, 우주 방위사업 발전 전담팀 가동

방위사업청은 8월19일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을 단장으로 우주 방위사업 발전 전담팀을 본격 가동한다. 전담팀에는 국방부, 합참,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국방분야 우주 업무를 담당하는 전 기관이 참여한다. 방사청은 “지난 5월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 국방 분야 우주개발의 가속화 여건이 조성되었다”며, “향후 10년간 국방

분야에서만 총 16조 규모의 우주 개발 투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우주 방위사업 발전 전담팀(TF)은 안보전략 차원에서 국가 우주 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 분야 우주 관련 유관기관 협업을 기반으로 우주 방위사업 종합계획 수립과 우주 방위산업 육성 방안 모색, 우주 관련 대외 메시지 관리 등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홈피 및 모바일 앱 간편 인증 서비스' 도입

국방부는 8월17일부터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 및 모바일 앱 간편 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로그인시(구)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디지털원패스, 아이핀 4가지만 사용 가능했으나 여기에 카카오·삼성패스 등 간편 인증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에 예비군들은 간편하게 예비군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예비군 웹사이트는 예비군들이 나의 훈련 정보 확인, 훈련 신청(전국단위/휴일), 훈련

연기·보류 신청 등훈련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해결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복잡한 본인확인 절차로 인해 사용간 불편함도 느껴왔다.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가 추가되면, 예비군들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플랫폼(카카오, 삼성 패스, KB은행, 이동통신사 패스, NHN 페이코)과 인증방식(PIN*, 패턴, 지문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서비스는 예비군 PC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이나 앱(Android, iOS)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병무청 창설 51주년, 혁신적 병무행정 다짐

병무청은 8월19일 병무청 창설 51주년 기념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모두가 함께 새로운 병무행정의 50년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되새겼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병무청 본부와 소속기관 직원들이 비대면으로 기념사를 돌아가면서 낭독하는 영상을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축하메시지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청춘 디딤돌 병역진로 설계, 취업맞춤특기병 등 각종 제도 신설, 대체역심사위원회를 통한 대체역 제도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운영 등을 차하고 앞으로 도 혁신적인 병무행정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



비하는 병무청이 될 것을 당부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청 창설 51주년을 계기로 국민의 마음으로 적극행정을 펼쳐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병무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남미 유일 참전국, 콜롬비아 6.25 참전용사 초청

자유와 평화 위한 유엔참전국에 감사... 양국 국제보훈 협력 강화



방한 중인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참전용사 길예르모 로드리게스 구즈만, 알바로 로사노 차리,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등이 8월25일 국립현충원을 찾아 전몰 참전용사들을 참배했다.

국가보훈처는 8월23일부터 27일까지 6·25전쟁 당시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전투부대로 참전한 콜롬비아 참전용사를 초청하여 감사와 보은의 시간을 가졌다.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노력한 유엔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해부터 유엔참전용사 재 방한이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양국의 국제보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

됐다. 이번에 초청한 참전용사는 콜롬비아 참전용사 장교회 회장으로 1952년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콜롬비아 과견대대 소대장으로 참전한 길예르모 로드리게스 구즈만(GUILLERMO RODRÍGUEZ GUZMAN)과 콜롬비아 참전협회 회장으로 1952년 12월에 육군 병사로 참전한 알바로 로사노 차리(ÁLVARO LOZANO CHARRY) 남이다. 방한기간 이들은 평화전망대를

방문하여 남북 분단의 현장을 직접 둘러봤으며 대한민국 참전용사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전몰전우들을 참배하고 70년만의 한-콜롬비아 참전용사 만남의 시간도 가졌다. 콜롬비아는 6·25전쟁에 연인원 5,100명이 참전하여 흑운토령 전투, 금성 진격전, 불모고지 전투 및 동해 보급품수송선단 호위 작전 등에 크게 기여했으나, 안타깝게도 213명이 전사했고, 448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가보훈처-LH, 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 지원

내년 3.1절 계기로 독립유공자 대상 '특화주택' 시범공급

국가보훈처는 8월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독립유공자와 후손 대상 특화주택 공급 ▲취약주택에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의 긴급·수시지원·국가유공자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주거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3·1절 계기로 서울 지역에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대상으로 입주할 수 있는 '특화주택'을 시범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특화주택 내에 보훈공동체 시설 등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보훈을 알리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훈단신

제대군인 4차 산업혁명 사이버연수원 개설

국가보훈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중장기 제대군인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대군인 4차 산업혁명 사이버연수원'을 8월부터 개설하여 운영한다. 이번 개설되는 사이버연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대비하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제대군인의 취업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보훈처가 추진하는 교육 사업이다. 이번 사이버연수원에 마련된 강좌는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빅데이터, 사물인

터넷(IoT), 스마트제조, 인공지능, 클라우드, 정보보안, 블록체인,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핀테크, 무인 이동체 등 9개 분야 216개 과정이다. 이용 가능한 대상은 5년 이상 군 복무한 제대군인(예정자 포함)으로서 제대군인지원센터(www.vnet.go.kr) 회원 가입자이다. 희망자는 개설된 사이버연수원 누리집(http://vnet.winzday.co.kr)에 접속한 후 관심 분야의 강좌를 개별 수준에 맞게 선택하여 수강하면 되고,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생존 애국지사 초상화 특별 전시회 개최

국가보훈처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8월10일부터 29일까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10옥사)에서 찬란했던 독립의 역사와 함께 한 생존 애국지사의 초상화 및 정밀모형(피규어)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다. '우리의 영웅!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전시회는 초상화를 통해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생존 애국지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국민들과 함께 그분들의 뜻을 기억하고자 기획되었으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 초상화 16점과 정밀모형(피규어) 5점이 전시됐다. 현재 생존 애국지사는 19명(국내 16명, 국외 3명)으로 전시된 초상화 16점 중 여성은 오히옥 애국지사 한 분이다. 또 광복군 활동은 김영관 애국지사 등 네 분이 참했으며 나머지는 학생운동 및 국내의 항일운동으로 독립에 헌신했다.

유엔참전국에 전통문화 알리기 업무협약



국가보훈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엔참전국에 한복 등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8월2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유엔 참전용사에게 전통문화 무료 체험 등을 통해 감사를 전하고 유엔참전국에 한복 등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게 된다. 아울러 유엔 참전용사와 후손 방한 행사, 유엔참전국 현지

위로·감사 행사 등을 계기로 전통문화 알리기는 물론, 향후 참전국과의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국제보훈 정책과 전통문화 홍보 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유엔 참전용사에게 한복을 선물하는 재능기부 활동으로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국격을 높이는 일에 앞장선 김인자, 김혜순 한복 디자이너에게 공동으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시 도회장 릴레이 제언 / 향군을 말한다 ⑧

패러다임의 전환이 조직의 성패를 좌우 한다

‘재향군인’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현역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사람’ ‘현역에서 물러나 고향에 돌아와 있는 군인’을 의미하며, 퇴역군인 또는 베테랑(Veteran)이라 부른다.

제대군인들로 구성된 재향군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 및 향토방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위해 결성된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이다.

인간은 원초적으로 공적인 의무보다는 사적인 권리에 더욱 더 강한 성격을 지닌 사회적 동물이다. 공적 집단인 정부나 군, 경찰보다 자신의 가족이나, 마을,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 우리 향군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향군의 역할이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향군, 지역사회와 국가발전 밑거름 돼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전·충남 재향군인회도 1952년 2월 1일 창설된 이래 대전·충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한편으로는 각 회원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2008년 2월 현 부지에 향군회관을 준공하여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21개 시·군·구와 25개 읍·면·동회를 가진 거대한 조직으로 발돋움하여, 베테랑답게 안보 및 국가 안위를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때로는 봉사단체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나는 1996년 7월 명예로운 군 전역이후 재향군인회에 몸담게 되면서 조직부장, 사무처장, 부회장 등 25년간 주요 보직을 역임한 후 2019년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내가 취임당시 전임회장의 갑작스런 사임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불협화음이 있었고 조직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회장 취임 후 손자병법의 “영민여상동의야, 가여지사 가여지생, 이불외위야(令民與上同意也 可與之死 可與之生 而不畏危也)” 즉, “위, 아래가 같은 생각을 가지면 죽고 사는 것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로 뭉친 시·도회를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회원들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먼저 생각을 바꾸어야 하고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도 바뀔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회장인 나부터 건전한 생각과 올바른 안보관을 가지기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

그리고 패러다임의 전환과 동시에 정기적인 각급회장 및 시·도회 임원진과의 간담회, 회장 및 직원들에 대한 회무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군회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봉사 및 안보활동, 그리고 평소 잦은 On-Off 접촉을 통해 상·하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였다. 또, 회원들의 경조사 및 생일에 전 회원이 함께 슬퍼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취임



박 재 운
대전 충남 재향군인회 회장

이후 단 1건의 민원 및 불만의 행위도 발생하지 않고 본회의 지휘 방향과 지침에 순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

일체감 조성하기 위해 패러다임 바꿔야

그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충남 재향군인회는 향군의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하여 보수, 진보 등 진영논리에서 벗어난 순수 안보단체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내 군부대 및 기관들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수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대국민 안보의식을 강조하였으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참전용사 및 원로 회원들의 별세 시 장례차량의 앞에 경찰차량 컨보이, 참전용사가 사담기, 코로나 방역을 위한 자치활동, 착한 입대인 운동 동참하기 등 대전·충남 시·도민들의 실생활 속으로 한발 더 다가가 생활 속의 향군 활동으로 지역을 튼튼히 하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보훈분야의 새로운 이정표를 정립하고 있다

이와같은 끈질긴 노력으로 이제 대전 충남 재향군인회는 회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지역 안보단체로서 확실한 위상을 되찾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21개 시군구회 역시 본연의 역할을 조용하지만 알차게 잘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각급회의 자립기반 조성, 향군활동의 주역이 될 젊은 향군회원의 확보,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조직적인 대국민 안보계도활동 등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다.

향군의 다양한 활동, 지역 발전의 원동력

옛말에 “내 스스로 서야 남을 세울 수 있다(起立立人)”라는 가르침이 있듯이 향군 전 회원들이 베테랑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면서 내 고장 내 지역은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하였을 때 이러한 향군의 다양한 활동이 쌓이고 싸여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나도 대전 충남 지역을 맡고 있는 거대한 안보단체의 장으로서 초심을 잊지 않고 끝까지 향군 회원 및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신바람 나는 향군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내 최고 최대의 안보단체인 향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전주시 향군, 하나은행과 업무협약 회원위한 금융서비스 지원, 동반성장 협력



전북 전주시 향군(회장 김용덕)이 8월18일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 및 하나카드(사장 권길주)와 하나은행 광주전북영업본부에서 ‘전주시 향군회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하나은행은 전주시 향군 회원에 대해 금융서비스 제공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하나카드는 제휴카드 발급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 협력관계를 통해 상호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전주시 향군 김용덕 회장과 하나은행 광주전북영업본부 양동원 지역대표는 “전주시 향군 조직을 통해 하나은행 선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상호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용덕 전주시 향군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양동원 하나은행 광주전북영업본부 지역대표, 김세훈 하나은행 전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성남시 향군, 자원봉사자 표창 전수 코로나 19 접종센터 지원, 원활한 접종 귀감

코로나 19 접종센터 지원, 원활한 접종 귀감



경기도 성남시 향군(회장 우건식)은 7월29일 향군회관에서 코로나 19 접종 센터 자원봉사 유공자에 대한 성남 시장표창 전수식을 가졌다.

성남시 향군은 코로나-19로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에서 총96명이 참여하여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접종센터에서 센터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위치 안내, 휠체어 보조, 예진표 작성 등의 행정지원 봉사를 펼쳐, 원활한 접종이 이루어

지도록 했다.

이날 전수식에서 우건식 회장은 “봉사자 여러분이 진정한 성남향군의 얼굴이고 봉사인의 꽃이자 열매이기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를 꼭 기억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성남시 향군은 앞으로도 자체 봉사활동은 물론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향군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대만 향군 임병옥 회장, 이석영 선생 후손 찾아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일환, 핑둥에서 입증자료 확인

향군 대만지회(회장 임병옥)가 8월23일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운동' 일환으로 대만 핑둥에서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의 후손과 이를 입증하는 기록을 찾았다. 이석영 선생은 자신의 농토를 팔아 만주로 망명한 뒤, 경학사 및 신흥무관학교 창설에 운영자금을 지원한 인물이다. 그의 장남인 이규준 선생 역시 중국 한커우를 중심으로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

최근 이석영 선생의 증손녀이자 이규준 선생의 손녀인 최

광희·김용애 씨는 대만에서 생활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던 이모 이우숙 씨(이석영 선생의 손녀)를 찾기 위해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했고 중화민국한인회장을 역임한 임병옥 대만지회장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임병옥 지회장은 2박3일 일정으로 타이베이에서 약350km 떨어진 핑둥으로 찾아가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흔적을 찾았고 그 결과 이우숙 씨의 차남과 장남 가족, 타이베이에 거주 중인 자녀를 만날 수 있었다.

이병희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재단 이사 틸릴리 이사장과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공동수상



미 동부 향군회장을 역임한 이병희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재단 이사가 7월27일 틸릴리 이사장과 함께 워싱턴 DC내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에서 열린 68주년 7.27 정전기념식에서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을 수상했다. 재단의 집피서 사무총장에게는 한반도 평화메달이 수여됐다.

한국 외교부 산하단체인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이사장 송기학)는 "수상자들은 한미동맹의 상징인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수

고 이외에 한미동맹에 크게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 메달과 상패는 한국전쟁의 상징인 DMZ 녹슨 철조망과 한국전쟁에 사용됐던 탄피 등을 녹여 특별히 제작된 것이다. 우리민족교류협회는 지난 2013년 한국전 정전 6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DMZ 철조망과 탄피 등을 녹여 대한민국 국민보은 메달을 제작,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미 동부 향군, 살로홀 참전용사 지회에 마스크 전달



미 동부 향군(회장 김인철)은 8월4일 메릴랜드 살로홀 참전용사 지회에 마스크 2000장을 기증하고 우의를 증진했다.



나라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대한민국 최고·최대의 안보단체 재향군인회!!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향군이 되겠습니다.



향군 정회원이 되어주세요

- 회원자격 : 군번있는 자 누구나
- 평생회비

병사	부사관·위관	영관	장군
1만원	2만원	5만원	10만원

- 정회원 특전 : 향군편의시설, 향군가맹점 할인 혜택
- 문의 : 02)417-5412, 모바일 가입 가능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주)중앙고속, (주)향우산업(주), (주)향우종합관리(주), (주)향우실업(주), (주)통일전망대
업체 (주)충주호관광선, 종합사업본부, 향군타워사업본부, 고속도로휴게소사업본부

경북 포항시 향군, 태풍피해 복구 지원

경북 포항시 향군(회장 이종엽)이 8월29일 제12호 태풍 '오마이'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8월24일부터 피해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군 장병, 공무원들을 도와 죽장면 피해지역에서 농경지에 밀려온 쓰레기와 부

유물을 제거하며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종엽 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항상 앞장 서 왔던 향군이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며 "어떠한 재난이 닥치더라도 주민들을 위해 끊임없이 봉사하는 향군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각급회 소식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안보 계도에 팔 걷어... 향군 각급회 활동

(7월21일~8월20일)

서울시 향군



서울시회 : 8월19일 김윤환 회장 등이 오기형 국회의원을 방문, 국회 정무위 계류 중인 향군법 개정관련 의견 전달.



용산구회 : 여성회는 8월9일부터 17일까지 용산구보건소에서 백신 예방접종 안내 봉사활동 전개.

성북구회 : 8월10일 신세계안과병원과 향군 가맹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들에게 진료 감면 혜택.

강서구회 : 8월11일 강서구의회를 방문, 이의결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업무 토의.

노원구회 : 8월18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흥범도 장군 안장식 참석.



마포구회 : 8월20일 홍제천 주변 일대에서 자연정화활동을 통한 및 쾌적한 환경 조성운동 전개.

대구시 향군



대구시회 : 7월27일 6·25참전유공자 대구지부를 방문, 모기 퇴치제 100점을 전달하고 건강한 여름 나기를 기원.

동구회 : 8월9일 지역 내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난감 청소 등 봉사활동 실시.

서구회 : 8월19일 서구청 복지생활국장

및 실무자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현안 논의.



수성구회 : 7월21일, 8월6일 방역지침 준수한 가운데 수성못 주변 자연정화 봉사활동 실시. 8월19일 생활이 어려운 향군회원 및 북한이탈주민에게 이불세트 지원.

남구회 : 8월9일 남구의회를 방문, 구의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코로나 19 극복 및 안보의식 고취 중요성에 대해 의견 나눴.

인천시 향군



연수구회 : 7월26일 임상명 회장이 연수구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물론 구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연수구 의회 표창장 받아.

경기도 향군



여주시회 : 7월28일 신가식당에서 한부모 가정 및 조손 가정, 소년소녀 가정 밑반찬을 만들어 배달 봉사. 8월19일 여주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코로나 19 백신접종 센터에서 접종지원 봉사활동 및 GTX 유치지원 서명 홍보.



성남시회 : 7월29일 향군회관에서 기백한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 가족들

의 건강 복지 증진. 8월9일부터 14일까지 성남시 코로나-19접종센터에서 접종지원 봉사활동.

강원도 향군



춘천시회 : 8월17일 환경감시대원 및 임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사북면 지촌천 일대에서 쓰레기 정리 등 환경정화활동 실시.

충청북도 향군



괴산군회 : 여성회는 8월11일 일손이 부족한 불정면 앵천리 건야마을을 방문, 복숭아 따기 봉사활동 실시.



제천시회 : 8월10일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남현동 및 화산동 통장협의회에 사랑의 쌀 10kg 20포대 전달. 8월13일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 동참. 8월3일 신동기 전 회장을 초빙, '6.25전쟁의 실체'를 주제로 온라인 안보강연 실시.

대전 충남 향군



금산군회 : 8월13일 금산군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 19 대응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격려금 100만원을 전달.

전라북도 향군



전북도회 : 회장단은 8월10일 향군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조직 발전방안 및 현안에 대해 의견 나눴.

전주시회 : 8월19일 가족재가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 복지체계 강화. 7월21일 전주시청 복지환경국을 방문, 관련 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향군예우 및 지원조례 개정 건의 안 진행상황 등 논의. 여성회는 8월4일 덕진노인복지관에서 배식봉사활동 펼쳐.



남원시회 : 7월28일 향군회관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갖고 하반기 사업계획 토의. 여성회는 8월6일, 19일 이백면 제빵교육 실습실에서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과 제빵 및 쿠키 만들기 봉사활동 실시.



군산시회 : 8월17일 신광모자원을 방문,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신광모자원 아이들을 위해 작은 나눔 실천. 7월28일 안경대통령 나운점과 향군합인가맹점협약을 맺고 회원 복지 증진.



부안군회 : 여성회는 7월27일 향토방위와 해안 경계작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고회대대를 방문, 마스크를 전달하고 장병 격려.

익산시회 : 7월22일 숨리에술회관에서

전북서부보훈지청주관으로 진행된 제71주년 6.25전쟁기념일 및 제68주년 정전협정 계기 보훈가족 음악회 참석.

무주군회 : 8월12일 무주군청을 방문, 황인홍 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회관 시설보수비 지원 등 현안 논의.

장수군회 : 8월20일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읍 면단위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생일상 차리기 봉사활동 실시.

광주 전남 향군



광주 서구회 : 여성회는 7월22일 여성회 월례회의를 마치고 대대적 거리질서 지키기 캠페인 실시.



광양시회 : 7월29일, 8월2일, 8월12일 3차례 송보아파트 공동육아나눔터에서 공동육아 나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공동육아를 통해 서로 격려와 상생하는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

영암군회 : 여성회는 7월21일 영암기찬랜드 일대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 실시.

함평군회 : 여성회는 8월7일 함평군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 분들에게 전달할 점심도시락 봉사활동 실시.

경상북도 향군

영주시회 : 7월23일 신임 인사차 향군을 방문한 김덕선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맞아 간담회를 갖고 현안 논의.

경산시회 : 8월4일 영남대학교 군사학과 및 한국군사문제연구소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남 울산 향군

고성군회 : 7월29일과 8월2일 안보단체 사무실 및 호우피해 호국용사 가정을 방문하여 마스크를 전달하고 위로.

통영시회 : 8월3일 생계비를 수급하고 있는 6.25참전유공자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방역물품 및 건강 음료 전달 및 말벗봉사.

거제시회 : 여성회는 8월9 삼성중공업 휴센터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봉사활동 전개.



김해시회 : 8월18일 관내 음식점 '용궁장어'와 향군 할인가맹점 협약식을 갖고 향군 회원 할인 혜택.

울산 중구회 : 여성회는 8월4일 무료급식소 수자타의 집에서 급식봉사활동 실시.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8월20일 나라사랑 그림공모전 행사를 후원해 준 제주도 학원연합회장을 초청, 감사 인사.

◇회원의 목소리

미국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을 아시나요?

지난 세기 중반에 한반도에서 발발한 6·25전쟁은 핵무기만 제한되었을 뿐 제3차 세계대전이나 다름없었다. 인류 역사상, 한 공간에서 전 국민과 25개국의 200만에 가까운 군인이 생과 사의 순간 순간을 넘나들며 치른 전쟁이다.

당시 세계의 독립국가 93개국 중에서 미국을 비롯한 60개국이 남한에,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9개국이 북한을 지원을 했다. 이렇게 1953년 7월27일 오전 10시 정전협정을 체결하기까지 1129일간의 국제사회에서 벌어졌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다. 어느덧 71년이 지나 그때의 참전 유공자들은 하나 둘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전후세대들은 풍요와 자유 속에서 이 전쟁에 대한 기억들을 잊고 국가안보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국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을 소개한다. 한미동맹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미주 한인사회와 미 재향군인 단체들이 추진하고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Wall of Remembrance) 건립공사가 지난 5월21일 오후(미 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착공식이 있었다. 이 추모의 벽은 미국 워싱턴DC의 한국전참전기념공원 내에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3만6574명과 카투사 7200명 등 4만3774명의 이름을 새기는 작업이다.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참전비등에는 전사자 명단이 있지만 한국전 기념비에는 이들을 기리는 이름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미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KWVMF)이 추진했다. 총 2500만 달러(한화 약 280억원)를 투입해 2022년 완공한다. 이 사업은 전액 미국과 한국 국민의 기부를 통해 마련됐다. 한국 국회도 지원을 결의했다.

특히 김진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은 2018년 8월 미국재향군인회 100차 총회 축하 연설과 방미 활동 간 워싱턴에 있

는 한국전참전비와 베트남전참전비에 참배 헌화하면서 베트남참전비와는 달리 한국전참전비에는 전사자 명단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아쉽게 생각하던 차에 한국전참전 기념공원재단(KWVMF)에서 '추모의 벽'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향군의 모금운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향군은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벌였고 이를 안 정부가 발 벗고 나서 2021년 정부 예산에 267억원을 편성 지원하여 사업이 진행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한국전쟁참전용사 기념공원재단 집 괴서 재단 사무총장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는 쉽게 퇴색되거나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쟁을 겪고 짧은 시간 내 우뚝 선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참전용사들은 놀라움과 자부심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향군은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해 10개월 간 모금한 6억3000만원을 김진호 향군회장이 지난 2019년 7월 27일 정전협정 66주년을 맞아 미국 방문시 기념공원재단 측에 전달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잘 알지도 못했던 낯선 동양의 땅 한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군인들의 희생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켜내었고 현재의 강력한 한미동맹의 바탕이 되었다. 추모의 벽은 한국과 미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전쟁을 기억하게 하고, 무덤도 비석도 없는 잊혀진 수많은 영웅들을 추모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 달 수
제주도 향군 회장

※ 본고는 제민일보 8월17일자에 게재된 글입니다.

군번만 있으면

누구나 향군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정회원가입

향군 가맹점 보기

본부 및 각급회 소식

본부 및 각급회 연락처

■ 정회원 자격 : 군번호지자 누구나

-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자
-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 정회원 특전

- 향군 편의시설 할인혜택
 - 중앙고속관광, 고성 통일전망대, 충주호관광선 등
- 전국 향군 우대가맹점 할인
 - 전국 가맹점별 할인(10~30%)
 - 군인공제회관 '엠플러스 웨딩' 할인 (웨딩, 뷔페 등 전품목 15%)
- 자녀 장학금/생계보조금 지급
- 국립 현충원/호국원 안장 대상자 안내
- 각종 향군행사 초청 및 참가
- 기타혜택 (복지물 등)

■ 평생회비 (단 1회만 납부)

병	부사관·위관	영관
1만원	2만원	5만원

☞ 모바일 바로보기

APP 다운로드 방법

GET IT ON Google Play

DOWNLOAD ON THE App Store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와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검색
상단에 나오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APP을 클릭하여 설치 후 실행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원 가입문의 : 02)417-5412
홈페이지 : http://www.korva.or.kr

성우회, 아프간사태 교훈 논의

비극의 역사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 필요

성우회(회장 이종옥)는 8월19일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해 비슷한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종옥 회장은 “최근 미군이 완전 철수하기도 전에 아프간 정부군이 탈레반에 항복하고 수도 카불이 함락되었다”며 “이 상황은

베트남 미군 철수와 6.25전쟁의 사례와 유사한 점이 많으며 미국의 세계안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은 미국의 국익과 함께 당사국의 승리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예비역 안보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ROTC 성우회 조재토(학군9기, 예. 육군 대장) 회장이 참석하여 더욱 의의를 더했다.



향군, 여성경제인협회와 업무협약

여성경제인 역량 강화, 여성회원 우대서비스 교류



향군 종합사업본부는 8월9일 향군회관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정윤숙)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증진과 공동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측은 △추진 사업에 대한 공동협력 △상호 연계를 통한 여성경제인 역량 강화 △여성회원 우대를 위한 서비스 교류 등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경협 회원사를 대상으로 국방부·국가보훈처와 연계해 납품이나 사업을 제안할 경우, 적극 반영하거나 향군 인프라를 적극 지원하고 공동 사업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향군 일자리정보를 공유해 경력단절여성에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향군 평생교육원과 ‘재가복지사과장’, ‘여성탐정 최고위과정’ 등 교육과정 개설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기업 우수 제품을 발굴해 향군복지물, 국군복지단 총성마트 입점 컨설팅과 향군마트 입점 등을 모색하고 여경협 추천

우수기업을 향군가맹점에 등록시켜 해당 제품을 지역특산품으로 소개하거나 향군 고속도로휴게소 입점 등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엔케이맥스와도 업무협약

군 NK부킷트 면역검사 사업 추진

종합사업본부는 또 8월19일 NK세포 면역항암제 개발기업 엔케이맥스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차단을 위한 ‘군 NK부킷트 면역검사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델타변이 확산 상황에서 군이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잇단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가 안보대세를 공고히 하고 군 사기진작을 위해 기획됐다.

엔케이맥스는 NK부킷트 면역검사를 사단급 시범사업 대상 선정 후 우선 추진하며 직업군인 포함 약55만 군인대상으로 단계별 면역 검사 확대 추진해 전투력 향상에 일조한다.

엔케이맥스의 NK부킷트 면역검사는 국내 2000여개 건강검진기관에서 NK면역세포 활성도를 측정하는 국내 유일의 검사로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면역력이 주목받으면서 면역력을 측정하는 NK세포 활성도 검사 또한 각광을 받고 있다.

홍범도 장군 78년 만에 귀향, 국립현충원 안장



봉오동·청산리 대첩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78년만에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와 8월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정부는 유해봉환을 통해 장군의 독립정신을 잇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향군 할인가맹점

▲ 향군 할인가맹점 협약 업소현황
전국 1,161개 업소

▲ 이용방법 :

사용 시 향군회원증, 여성회원증, 장성회원증 제시

*숙박시설, 병원 등 이용 시 사전예약

▲ 향군 우대가맹점 찾기

- 향군 홈페이지(<http://korva.or.kr>)
향군 할인가맹점 검색

*이용 희망지역, 업종 및 상호명으로 검색

- 사용 예정지 해당 지역 시·도 / 시·군·구 재향군인회로 전화 문의

▲신규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강북21세기병원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473) 1577-6336 : 비급여 10%
- 김용 한의원 (서울시 중랑구 겸재로27길 103, 1층) 02-435-0025 : 비급여 10%
- 김충치과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189) 031-375-2275 : 비급여진료비 10~30%
- 기백한의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25, 2층) : 031-8019-7550 : 비급여 10%

식당/음료

.

기타

- (주)뉴성운관광 (경남 창원시 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로250) 055-214-6600 : 할인가표 참고
- 더뷰안경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281) 02-492-3240 : 10%
- 군산안경대통령 나운점 (전북 군산시 나운동 대학로 30) 063-461-6980 : 10%
- 1001안경콘택트 옥천점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61) 043-733-3439 : 20%

▲우수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부산시 서구 감천로 262)

051-990-6114 : 10~20%

• 대구의료원 (대구시 서구 평리로 157) 053-560-7575 : 10%

• 보니파시오 요양병원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43-5) 042-717-1000 : 20%

• 성심치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3) 031-747-4340 : 10%

• 연세안과의원 (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65번길 17) 032-543-3471 : 정상가 30%

• 통영서울병원 (경남 통영시 남해안대로 857) 055-644-1777 : 10~15%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892) 1577-5800 : 비급여 10%, 제증명 50%

• 거봉백병원 (경남 거제시 계룡로 5길 14) 055-733-0000, 비급여부분 10%

숙박/리조트

• 라마다문경새재호텔 (경북 문경시·읍 새재2길 32-3) 054-504-7077 : 객실 30%

• 메종글래드 제주 (제주시 노연로 80) 010-4692-1219 : 20~30%

• 신안비치호텔 (전남 목포시 해안로 2) 061-243-3399 : 객실 30%

• 웨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 02-221-2000 : 정가의 40~50%(디럭스 객실, 조식)

• 그린라군 호텔 인 설악 (강원도 속초시 청봉로 141) 010-6728-2030 : 특가

기타

• 두산익스프레스 (대전시 서구 월평중로3번길 95) 042-488-0424 : 이사비용 10%

• 진주 릴리플라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62) 055-752-7030 : 10%

• 중앙스튜디오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34) 02-844-1177 : 20%

• 엠플러스웨딩(군인공제회관 내)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 군인공제회관 3,4층) 02-2190-2500 / 2222 : 15%

• 코바플라워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548-1) 02-3679-7070 : 근조 3단 화환 78,000원 / 축하 3단 화환 59,000원

• 아이랜드 & 렌스타운 당진점 (충남 당진시 중앙로 21-5) 041-354-0008 : 10%

특별기획 / 호국산성 기행

⑧ 대전 계족산성

백제, 웅진 천도 후 청주로 통하는 길목 방어위해 축성

망국의 한 품은 백제부흥군이 근거지로 삼았던 웅산성으로 추정



계족산성은 대전광역시 동쪽, 높이 423m의 계족산 위에 자리한 테피식 석성으로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후 청원군 문의와 청주로 통하는 길목을 방어하기 위하여 처음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계족산성은 산꼭대기를 머리띠처럼 비스듬히 두른 테피식 산성으로 구들장처럼 납작납작한 돌로 성벽을 쌓았다. 지대가 높은 서쪽과 북쪽은 바깥을 돌로 쌓고 안쪽을 흙으로 다졌으며, 지대가 낮은 동쪽과 남쪽은 안팎을 모두 돌로 쌓았다.

성벽의 두께는 4m가 조금 못되고 바깥벽 높이가 북쪽 벽은 10m 가량,

서쪽 벽은 7m 정도 된다. 성 둘레는 1km쯤 된다. 북쪽 성벽이 가장 잘 남아있고 나머지는 많이 허물어졌는데 근래 계속 개축되고 있다.

동쪽과 서쪽, 남쪽에 너비 4m 가량의 문터가 하나씩 있고 그중 남문터에는 지름 12cm 깊이 12cm 구멍이 파인 문 초석이 남아 있다. 동쪽으로 내려가는 비탈에는 길이 110cm 너비 75cm 높이 63cm인 장방형 우물터가 있다.

그 아래로 1m 가량의 수로가 있으며 다시 그 아래에 지름 1.5m 정도의 둥근 저수지가 있다. 샘에서 솟아난 물은 이 저수지를 거쳐 동쪽 수구문으로 흘러간다.

성안 서쪽의 높은 지대에 건물터가 여럿 있고 봉수대터도 있다. 이곳의 봉수대는 동남쪽의 옥천 고리산 봉수에서 신호를 받아 동북쪽의 청원군 문의면 소이산 봉수로 신호를 전달해주었다. 계족산성은 동북쪽으로 견두성과 산대성을 부속 보루성으로 거느렸다.

대전은 백제 때의 우술군이었다. 우술군에 붙은 계족산성은 백제 멸망 후

백제 부흥군이 근거지로 삼았던 웅산성이라고 추정되기도 한다.

이 산성에서 발견된 유물 가운데는 백제의 토기와 기와조각이 가장 많고 통일신라시대의 것이나 고려, 조선 시대의 자기조각도 종종 나왔다. 따라서 백제에서 맨 처음 쌓은 이래 조선시대까지 줄곧 성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계족산성은 사적 제355호로 지정되어 있다.

계족산은 아래쪽에 장동자연휴양림도 있고 해서 주변 사람들의 만만한 등산로로 많이 이용된다. 날이 가물 때 이 산이 울면 비가 내린다는 전설이 있다.

장동자연휴양림에서 산성으로 향하는 길은 널찍하게 닦이고 깎은 돌로 탄탄히 다져져 있어 걷기 편하다. 길 옆으로 가끔 물소리도 나고 주변 숲에 낙우송들이 죽죽 자라 있어 시원히 걸을 수 있다.

순환도로를 가로지른 후에는 갑자기 경사 급한 오솔길이 되어 숨이 가쁘지만 오르다 말고 가끔 멈춰서 점점 넓어지는 시계를 뒤돌아보는 맛도 좋다.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큰 '탈모증'



건강정보

'탈모증'이란 정성적으로 모발이 손상되어 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탈모는 아직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외 스트레스나 면역 반응이상, 지루성 피부염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본인 스스로 머리칼을 뽑는 습관 또한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치료

남성형 탈모의 치료로는 2~5% 미녹시딜 용액 도포가 많이 사용 되는데 초기 반응은 약 6개월 이후, 최대 반응은 약 1년 후에 나타나고 중단하면 약 2개월 후부터 다시 탈모가 시작된다. 그리고 안드로겐 생성이나 이용을 억제하는 경구피임약이나 전신적 항안드로겐 약물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실제 임상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남성의 남성형 탈모증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의 농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안드로겐 수용체 결합에도 영향을 없는 5-알파 리덕타제 억제제인 피나스테라이드를 많이 사용한다. 이 약물을 사용한 환자는 1년 후 약50%, 2년 후에는 60% 탈모가 증가되고 머리칼의 굵기나 길이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근에는 비슷한 약리 작용을 가지는 두타스테리드라는 약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복용 약은 적어도 3개월 이상 사용해 봐야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고 약을 중단하면 탈모가 다시 진행 될 수 있다.

남성형 탈모가 심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다. 후두부처럼 탈모가 나타나지 않는 부위의 머리칼을 탈모 부위로 이식 하는 것인데 전에는 미니이식이나 미세이식을 많이 했으나 요즘에는 털 집분리 기술의 발달로 모낭단위이식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단일모 이식술까지 개발되었다. 이 방법은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를 이식하게 되므로 더욱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수술 후에도 복용 약은 유지해야 한다. 약물이나 수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발 등을 사용할 있다.

예방

탈모는 유전 및 남성 호르몬이 원인이므로 근본적인 예방법은 없다. 다만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증상

머리를 감거나 자고나서 정수리 부위나 앞머리 부위에 머리칼이 많이 빠지거나, 머리칼이 가늘어지거나, 유전적으로 탈모 요인이 있으면 의심해볼 수 있다.

치료약 부작용

미녹시딜은 원래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되었는데 부작용으로 털이 자라는 증상이 있어 탈모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도포 시 피부 자극으로 피부가 가렵거나 붉어질 수 있으며,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면 전신흡수로 다모증이나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복용 약은 원래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데, 상용시 전립선 특이 항원(PSA) 농도를 감소 시키기 때문에 40세 이후에는 치료 전 PSA를 측정하는 것이 좋다. PSA는 전립선암의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약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PSA양은 측정치의 약 2배로 생각해야 한다. 그 외에도 일부에서 성욕 감소나 성 기능 장애가 보고되고 있고 정자의 모양이나 운동성에 이상이 보고되고 있으나, 임신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향군장학기금 기부

(21년 7월 22일 ~ 21년 8월 21일)

▶ 정기 기부 단위: 만원(기부누계)

- 前 향군홍보실장 이정호 1만원 (283만원)
- 권율부대 강모아 1만원 (73만원)
- 권율부대 김홍수 1만원 (12만원)
- 향군장학재단 정세관 1만원 (6만원)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 417-5887)

♣ 본 내용은 인터넷 "향군장학재단" 홈페이지(kvasf.or.kr)에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기부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금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전우여! 어디에 ...

◆최경수씨가 1974년 3월29일 서울시 소재 30사단 훈련소에 같이 입소하여 훈련을 마친 후 대전 육군통신학교에서 같이 교육을 받았던 이흥식씨를 찾습니다. 이 후 이흥식씨는 국군보안사령부에서, 본인은 9사단 30연대에서 복무하다 전역했습니다.
(최경수 010-6706-1511)

◆이상준씨가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상무대 수송 1중대에서 같이 근무한 전우를 찾습니다.
(이상준 010-7345-7469)

◆김한수씨가 1979년~1981년 30

사단 312대대 포병 차리부대(파주)에서 함께 군 생활을 했던 안성광씨(1958년 부산 출신)를 찾고 싶습니다.
(김한수 010-9809-3287)

◆1987년, 88년 경 육군 방공포병 155대대 5포대 상황병이었던 박종기씨가 같이 근무했던 김영빈(속초 출신) 중위를 찾습니다.
(박종기 twojkorea@naver.com)

◆박상희씨가 1971년, 72년 주월백마부대 30연대 3대대(판방) 10중대 본부에 근무했던 유현덕(서울 출신) 병장을 찾습니다.
(박상희 02-705-1007)

탐방 / 참전기념 시설물 ③ 유엔기념공원



세계 유일 유엔기념 묘지, 유엔 전몰장병들 영원한 쉼터

전쟁 비극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과 영원 담아

“내가 피흘려 지킨 한국에 물어달라” 1953년 7월 26일 밤 철의 삼각지대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후송됐던 네덜란드의 한국 전 참전용사 고 윌렘 코넬리스 드 바우즈르 씨의 유언이다. 그는 2019년 3월 부산 유엔기념묘지에 안장됐다.

프랑스의 참전용사인 레몽 베르나르씨, 영국군 참전용사 윌리엄 스피크먼씨도 자국으로 돌아간 이후 한국을 잊지 않았고 생전의 유언이 “내가 지킨 한국에 물어달라”였다. 이들은 모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영면하고 있다.

이들의 안장식에서 현화하는 유가족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버지께서 이곳에서 편안히 잠드시게 됐습니다. 아버지도 한국 땅에 묻히셔서 행복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가슴뭉클한 장면이다.

20대 전후의 청년기에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나라 한국에 와서 전투를 하고 사후에 다시 돌아온 유엔 참전용사들...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나라의 영토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어 유엔군 전몰장병들이 안장돼 있는 유엔공원을 소개한다.

유엔기념공원(UNMCK)은 1951년 유엔군(United Nations Forces:국제연합군) 사령부가 6·25전쟁 당시 한국에 파병되었던 유엔군 전몰장병들의 유해를 안장하기

위하여 재한유엔기념공원으로 조성한 유엔군 묘지다.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묘지로서 같은 해 4월 묘지가 완공됨에 따라 개성, 인천, 대전, 대구, 밀양, 마산 등지에 가매장되어 있던 유엔군 전몰장병들의 유해가 안장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 국회, 유엔묘지 성지 지정

1955년 11월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군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이곳 토지를 유엔에 영구히 기증하고 아울러 묘지를 성지로 지정할 것을 결의하였다. 1955년 12월 15일, 한국정부로부터 국회의 결의사항을 전달받은 유엔은 이 묘지를 유엔이 영구적으로 관리하기로 유엔 총회에서 결의문 제977(X)호를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1959년 11월 유엔과 대한민국 간에 ‘재한 국제연합기념묘지 설치 및 유지를 위한 유엔과 대한민국간의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지금의 유엔기념묘지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 후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UNCURK)에 의해 관리되었으나 1974년 UNCURK가 해체됨에 따라 관리업무가 11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Commission for the UNMCK)에 위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먼저 정문을 지나 바로 앞에 있는 추모관부터 가보았다. 일단 건물이 정말 독특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 나오는 웅장함과 화려함으로 인해 말문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추모관은 양쪽의 스테인드글라스 하나하

나에 담긴 작품의 의미(평화의 사도/승화/전쟁의 참상/사랑과 평화 등)와 내부에는 전투 지원 참전 16개국을 뜻하는 16개의 선이 중앙정면 바닥에서부터 유엔마크를 통과하여 하늘로 승화하는 의미로 천장을 가로지르는 형태에서, 전쟁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과 의지를 담은 추모공간으로서의 엄숙함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밝은 계통의 색상과 조명이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와 어우러져 신비로우면서도 2,300여명의 안장 용사 안식처로 그들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추모관 바로 옆에는 기념관이 있다. 기념관은 추모관보다 더욱 현대적인 디자인을 지닌 건물이라서 내심 더 기대되었다. 내부에 들어가니 역시 현대적인 시설로 사진과 기념물이 깔끔하게 전시되어 있어 보기 좋았다. 기념관 벽면에는 전쟁 당시 유엔군의 활약상을 담은 사진이 참전국별 알파벳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그 아래쪽에는 기념품과 방문기념패 등이 전시되어 있다.

엄숙한 추모공간, 평화염원 의지 담아

그리고 변화되어 온 유엔기념공원의 전경과 국내에 세워진 한국전쟁 관련 참전 기념비, 설립 이래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 200년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수상 등을 비롯해 각국에서 방문한 VIP들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유엔군 위령탑

추모관을 나와 걷다보니 물고기들이 수로를 따라 헤엄치고 있는게 눈에 띄었다. 도르트 수로라고 안내문에 적혀 있는데 이는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전사자 중 최연소자(17세)인 호주병사(J P DAUNT)의 성을 따서 지은 것이었다. 이 수로는 묘역과 녹지지역의 경계에 있어 삶(녹지지역)과 죽음(묘역)사이의 경계라는 신성함을 함축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 잠들어있는 참전용사들의 영혼이 이 물길처럼 깨끗하고 평화롭게 쉬고 계시기를 기원했다.

6.25전쟁 기간 동안(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7일), 참전 22개국 중 17개국에서 40,896 명의 유엔군 희생자가 발생했다. 얼굴도 모르는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탐방하면서 유엔참전용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더욱 진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신서연 · 조승찬 향군 대학생 인턴기자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찾기 캠페인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실물 훈장을 받지 못한 주인공을 찾고 있습니다.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유튜브 '당신의 무공훈장' 검색